

상형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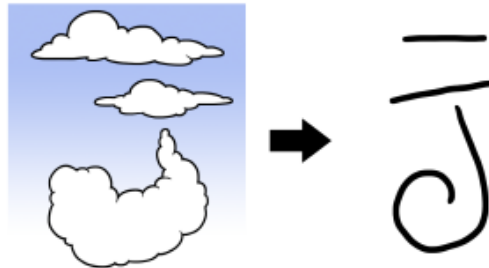
又

또 우:

又자는 '또'나 '다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又자는 사람의 오른손을 그린 것으로 이전에는 '손'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중국에서는 오른쪽이 옳고 바름을 상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가 어릴 때부터 오른손잡이가 되도록 가르쳤다. 그래서 又자는 '손'을 뜻하다가 후에 '또'나 '자주'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자주 쓰는 손이라는 뜻인 것이다. 특히 금문에서부터는 손과 관련된 여러 글자가 파생되면서 又자는 손이 아닌 '자주 사용한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하지만 又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여전히 '손'과 관련된 뜻을 전달한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상형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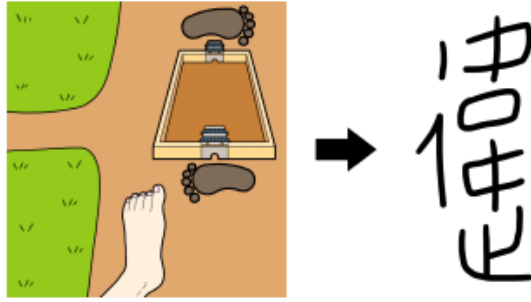
云

이를 운

云자는 '일컫다'나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云자의 갑골문을 보면 二자 아래로 구부러진 획이 하나 厶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云자의 본래 의미는 '구름'이었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云자와 雨(비 우)자가 결합한 雲(구름 운)자가 만들어지면서 '구름'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고 云자는 '일컫다'나 '말하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간체자(簡體字)방안이 시작된 이후 云자를 다시 '구름'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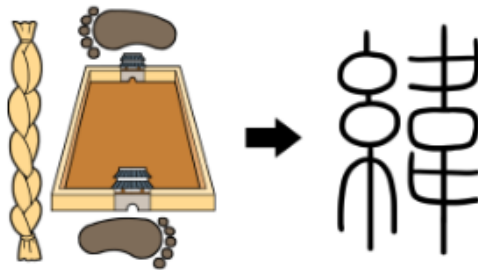
違

어긋날  
위

違자는 '어긋나다'나 '어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違자는 辵(쉬엄쉬엄 갈 착)자와 韋(가족 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韋자는 성(城) 주위를 돌며 경계서는 발을 그린 것이다. 그런데 韋자를 자세히 보면 성을 중심으로 발이 엇갈리게 ㄱㄴ 그려져 있다. 違자는 이렇게 발이 엇갈려 있는 모습을 그린 韋자를 응용해 '(길이)엇갈리다'라는 뜻으로 표현했다. 다만 지금의 違자는 길이 '엇갈리다'라는 뜻 외에도 '어긋나다'나 '어기다'와 같이 무언가가 그릇됐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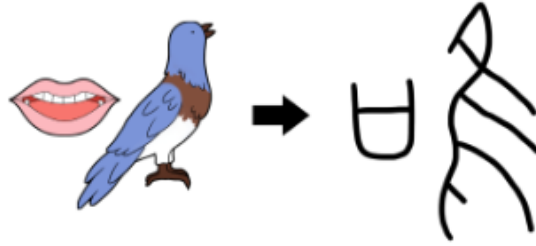
緯

씨 위

緯자는 '가로'나 '씨줄', '짜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緯자는 系(가는 실 사)자와 韋(다름가 족 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韋자는 성(城)을 중심으로 위아래에 발을 그려 넣은 것으로 '둘레'라는 뜻이 있다. 緯자는 이렇게 '둘레'라는 뜻을 가진 韋자에 系자를 결합해 '실을 두르다'라는 뜻을 표현했다. 여기서 '실을 두르다'라는 것은 낱실을 실패에 빙 둘러 감는다는 뜻이다. 緯자에서는 이것을 '가로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緯자는 실을 가로 방향으로 휘감는다는 의미에서 '가로'나 '짜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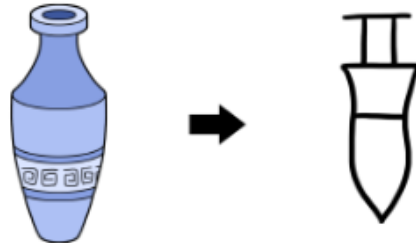
唯

오직 유

唯자는 '오직'이나 '다만'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唯자는 口(입 구)자와 隹(새 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隹자는 공지가 짧은 새를 그린 것으로 '새'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새를 그린 隹자에 口자를 결합한 唯자는 본래 새들이 서로 지저귀는 의미에서 '응답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지금의 唯자는 어조사나 '오직', '다만'이라는 뜻이 가차(假借)되어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상형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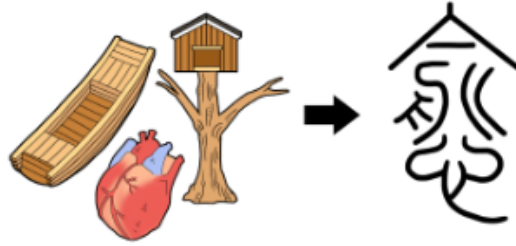
酉

닭 유

酉자는 '닭'이나 '술'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酉자는 '술병'이나 '술 항아리'를 그린 것이다. 酉자에 '닭'이라는 뜻이 있는 것은 우주 만물의 이치를 위해 만든 십이지(十二支)의 열째 글자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갑골문에 나온 酉자를 보면 뚜껑이 덮인 술 항아리가 酉 그려져 있었다. 酉자는 '술 항아리'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부수로 쓰일 때는 '술'과 관련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술은 일정 시간의 숙성과정을 거쳐야 만들어진다. 그래서 酉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술' 외에도 '발효'와 관계된 뜻을 전달하기도 한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형성문자①



愈

나을 유

愈자는 '(병이) 낫다'나 '뛰어나다', '점점'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愈자는 愈(점점 유)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愈자는 조그만 배와 도구가 그려진 것으로 '점점'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점점'이라는 뜻을 가진 愈자에 心자를 결합한 愈자는 본래 '(병이) 점차 나아지다'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러나 후에 '뛰어나다', '근심하다', '점점'과 같은 다양한 뜻을 표현하는 글자로 쓰이게 되었다. 주의해야 할 것은 愈자는 心자가 아래에 들어간 글자라는 것이다. 만약 心자가 좌측에 자리 잡고 있다면 '유쾌하다'라는 뜻의 愉(즐거울 유)자가 된다. 뜻이 전혀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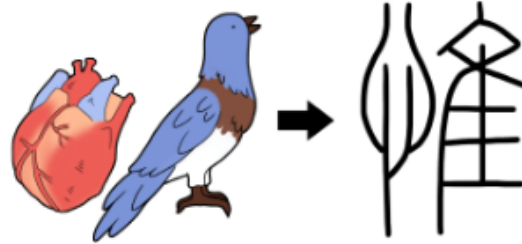
愈

소전

愈

해서

형성문자①



惟

생각할 유

惟자는 '생각하다'나 '사려하다', '오직'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惟자는 心(마음 심)자와 隹(새 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隹자는 공지가 짧은 새를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추→유'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惟자는 단순히 '생각하다'나 '사려하다'를 뜻하기 위해 心자가 의미요소로 쓰인 글자이지만 실제로는 '오직'이나 '오로지'라는 뜻으로 쓰이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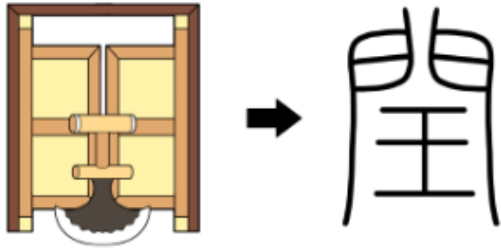
惟

소전

惟

해서

회의문자①



閏

윤달 윤:

閏자는 '윤달'이나 '잉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閏자는 門(문 문)자와 王(임금 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윤달은 실제 계절 년을 맞추기 위해 여분의 날이나 달을 끼워 넣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태음력을 따르자면 1년은 354일이 되기 때문이다. 태양력과 차이가 11일이나 발생하기 때문에 날짜의 불일치를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윤달'이다. 그래서 閏자에는 '잉여'라는 뜻도 있다. 고대 중국에서는 윤달이 있을 때마다 왕이 조상신을 모시는 사당을 찾아 제를 지냈다고 한다. 그러니 閏자에 쓰인 王자는 그러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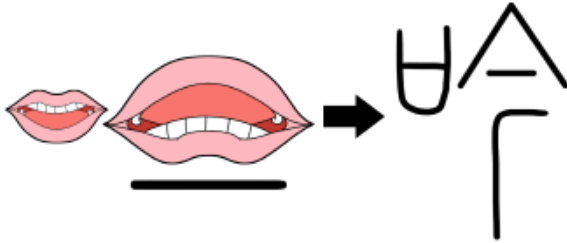
閏

소전

閏

해서

회의문자①



吟

읊을 음

吟자는 '읊다'나 '신음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吟자는 口(입 구)자와 今(이제 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今자는 입을 거꾸로 그린 것이다. 이렇게 입을 거꾸로 그린 今자에 口자가 더해진 吟자는 입과 입이 서로 맞부딪쳐 말이 새어나가지 못하고 맴돌고 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吟자가 '읊다'라는 뜻 외에도 '신음하다'나 '공공 앓다'라는 뜻하고 있는 것도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오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吟

소전

吟

해서